

중앙선관위, 대법원 재검표 결과에 정면 반박 "결과 믿을 수 없다"

인세영 | 승인 2021.08.16 11:01

부정선거 소송 접입가경 "대법원과 선관위 갈등 국면 진입"

준비서면

사 건 2020수30 국회의원선거무효
 원 고 민경욱
 피 고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다음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 음

소송당사자인 피고(선관위)가 대법원의

1. 재검표 검증결과에 관하여 재검표 결과를 부정하고 나섰다.

가. 검증결과 상 관외사전투표수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021. 6. 28.자 검증조서 별지 4. '재검표 검증결과'에 따르면, 관외사전투표수는 총 13,248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피고가 2020. 4. 15. 선거 당일 집계한 개표 결과(12,948표)보다 300표나 많고, 같은 검증조서 별지 2-2. QR코드 검증결과 의 '조사투표수(12,948표)'와도 맞지 않아 **원천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선관위가 415총선 선거무효소송 재검표 결과에 대해 대법원의 검증결과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는 서류를 제출해 파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는 최근 대법원에 서면을 제출해, "지난 6월28일 열린 415총선 인천연수구를 재검표 결과에서 대법원이 집계하여 발표한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관과 소송당사자, 양측 변호인과 법원 직원 등 100여명에 달하는 인원이 보는 앞에서 실시한 재검표에서는 기존 중앙선관위가 투표 당일인 2020년 4월15일 집계했던 12948장의 표보다 무려 300장이 늘어난 13248장의 표가 나온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선관위가 이런 대법원의 결과 발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선관위가 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법원 판사의 재량으로 진행된 재검표 결과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선관위가 대법원의 권위에 도전한 꼴이 된 셈이다.

대법원 (주심 천대엽)은 지난 6월28일 무려 20여시간의 재검표 끝에 일단 결과를 공식적인 서류에 명기한 상태이며, 당시 부정투표 의혹이 있는 투표용지가 너무 많이 나왔던 관계로, 전체 투표지 유효성에 대한 정밀 검증 기일을 남겨놓고 있다.

359167518.pdf

별지 4]

2020수30 재검표

읍면동	투표구명	정일영	민경욱	이정미	주
거소선상 투표	거소선상 투표	133	120	43	
관외사전 투표	관외사전 투표	6,183	4,760	2,073	
국외부재자 투표	국외부재자 투표	111	60	19	
국외부재자 투표 (공관)	국외부재자 투표(공관)	3	6	1	
	관내사전 투표	1,139	943	297	
	제1투	544	677	221	
	제2투	299	370	113	

2021년 6월28일, 재검표 당일 민경욱 후보의 사전투표 집계

거소·선상투표	
관외사전투표	
선거인수	12,957
투표수	12,948
후보자별 득표수	계 12,791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6,185
민경욱 미래통합당	4,460
이정미 정의당	2,073
주정국 국가혁명배당금당	7
무효투표수	157
기권수	9
국외부재자투표	
국외부재자투표(공관)	

2020년 4월15일 개표 당일 민경욱 후보의 사전투표 집계

해당 지역구의 소송당사자인 민경욱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이제 중앙선관위가 대법원의 재검표가 잘못됐다고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라면서 "대법관 세 명, 부장판사가 포함된 판사 10여 명, 변호사 20여 명, 참관인 1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법원 직원 수 십명이 밤새워 실시한 재검표가 엉터리였다고 공격을 했으니 대법원의 반응이 기다려집니다." 라고 적었다.

전문가들은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과 선관위의 감정싸움으로 비화될 조짐될 가능성도 있다. 어느 한쪽이든 물러서면 당연히 신뢰성에 회복 불가능 할 정도의 타격이 가게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천대엽 대법관이 투표지 유효성 검증 기일을 빨리 잡아서, 투표지의 유효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동시에, 다시 한번 숫자를 세어보는 방법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대목이다.

한편,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천대엽 대법관 측은 투표지의 유효성 검증 기일도 잡아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검표 당일 부정투표지로 의심되는 수천장의 투표지가 진짜 투표지인지, 가짜투표지인지를 가리는 날짜를 따로 정하기로 했는데 그 기일을 아직 정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부정선거의 주체로 의심받고 있는 중앙선관위가 대법원의 재검표를 결과 발표에 대해 정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라는 의견을 개진한 이상 대법원은 어떤 식으로든 사법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조속히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오히려 모든 비난의 화살이 대법원으로 쏠릴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원래 선거 관련 소송은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주게 되어있음에도, 이번 415총선의 부정선거 소송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이미 1년 이상의 시간을 끌었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파이낸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세영